

光日春秋

안도현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다. 컴퓨터 탓이다. 학생들이 꽤나 정성들여 작성해 제출한 리포트도 사정이 다를 거 없다. 글씨체가 너무 조악해서 봐줄 수가 없다. 대학생들의 글씨가 중학교 신입생만도 못한 게 수두룩하다. 우리의 교육과정도 글씨 잘 쓰는 공부는 제쳐둔 듯하다. 이대로 방치하다 보면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영영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육필이라는 말은 매우 고색창연한 말이 되었다. 글을 '치는' 게 아니라 '쓰는' 작가는 이제 극소수다. 문인들의 육필 전시회에서 보 소설가 김주영 선생의 원고를 잊을 수 없다. 그분의 원고는 원고지 칸을 또 박박 채운 게 아니라, 백지의 여백을 빈틈없이 메운, 무순 추상화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다가왔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백지를 메우고 있는 것은 정말 깨알처럼 촘촘하게 들어박힌 글자들이었다. 글자 하나가 얼마나 작은지, 개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형상이었

다. 고등학교 때 문예반에 들어가서 내가 맨 먼저 배운 '문화'는 선배들의 글씨체를 흉내 내는 일이었다. 지금은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선배는 만년필로 아주 예쁘고 멋진 글씨를 썼다. 함부로 흘려 쓰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모범생의 필체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문학청년의 냄새가 나는 글씨였다. 그 필체를 연습한 덕분에 나는 그 선배의 귀여움을 특별히 받을 수 있었고, 때로 선배의 소설을 원고지에 옮겨 쓰는 대필자로써의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우리는 글씨를 통해 원고정서법뿐만 아니라 문학청년으로서의 자세를 배웠다.

습작 시절에는 글씨 못지않게 어떤 원고지에다 글을 쓰는가 하는 것도 우리들의 매우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흔

히 문방구에서 구할 수 있는 붉은 줄이 쳐진 원고지는 첫 번째 기피 대상이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해지고 싶었던 것이다.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 출판사나 신문사 이름이 찍힌 원고지를 손에 들게 되는 날은 대단한 문사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원고지와 육필의 시대는 그 빛나던 아성을 잃었다. 가끔 문예작품 심사를 하다가 보면 그런 필체와 그런 원고지를 만날 때가 있다. 인쇄한지 좀 오래된 듯 원고지의 모퉁이가 바랜, 아주 유리한 만년필 필체를 정성을 들인 원고지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원고에 쓰인 언어

글씨 잘 쓰는 사람

는 수십 년 전의 정서와 감각에 머물고 있기 십상이다. 세상으로 나가야 할 시기를 놓친 원고를 옆으로 제쳐두면서 나는 원고지라는 형식의 종말을 쓸쓸히 지켜보곤 하는 것이다.

나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여덟 권의 시집을 냈다. 첫 시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자기나 컴퓨터로 쓴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다. 퍼스널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나는 타자기와 달리 무진장 지웠다가 다시 쓸 수 있는 신비한 기능에 그만 매료되고 말았다. 시 한 편을 쓸 때 보통

수십 장의 파지를 내던 나는 서슴없이 글을 '치는' 쪽에 줄을 서버렸다.

글씨를 쓰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우체국에 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우표 뒷면에 짐을 바를 일도 없어져버렸다. 원고를 이메일을 통해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원고 마감 시간 직전에 몇 번의 클릭으로 편집자에게 원고를 넘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한다. 고작 석 줄밖에 안 되는 줄사'너에게 묻는다'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너는/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가 전문이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제목이 '연탄재'로 바뀌는 가 하면 수많은 변종들이 생겨난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모든 국민이 다 서예가가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국어라는 글자 고유의 조형미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글씨에 인격이 드러난다는 말은 케케묵은 관용구가 되었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너나없이 책꽂이에 꽂아두던 '펜클럽 교본' 같은 책을 다시 우리 학생들의 손에 쥐어줘야 하나? <시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민·관 여수엑스포 유치 전략 차질 없어야

2012 여수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와 재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유치 지원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는 등 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계도 국내 글로벌 기업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유치지원위원회 열고 관련부처 중심으로 '유치지원TF'를 구성해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의 표심을 확실히 다잡 방침이다. 또 전라지역에 장관급 고위사절단을 파견, 지지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계도 민간 CEO단 파견, BIE 회원국에 대한 지원 및 투자 강화 등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다.

엑스포 개최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투표하기 때문에 회원국을 대상으로 어떻게 외교전을 펼치느냐가 성패를 가늠한다.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외교에는 연고가 있는 기업이 정부보다 강력

을 가질 수 있다. 여수 엑스포 유치에 정부와 재계가 합심해야 하는 이유다.

여수엑스포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낙관이나 막연한 기대는 글썽이라는 이야기다. 경쟁국인 모로코와 폴란드가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고, 회원국의 표심도 이상향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012 엑스포 개최지 결정은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의 외교력과 전략에 문제는 없는지 냉철하게 점검해 유치를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검증청문회 제대로 하라

한나라당이 19일 유력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상대로 검증청문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직접 대선 경선후보를 상대로 검증청문회를 여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청문회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려는 것은 당연하다.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구도는 한나라당 '빅2'의 독주 양상이다. 이명박·박근혜 경선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개월째 지지율 60% 이상을 점유하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반면 범여권은 지지율 10%대의 예비후보조차 없는 상태에서 유권자를 잡지 못한 채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 유력 경선후보인 검증공방은 고소·고발사태에서 드러나듯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 전 시장의 부동산 의혹 등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까지 불거지며 정점으로 번지고 있다. 범여권까지 가세해 대선정국이 검증공방으로 얼

룩지고 있는 것이다.

두 후보 진영은 '검증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후보는 도곡동 땅과 천호동 뉴타운 지정, BBK 사건 연루에 관한 의혹 등을 받고 있고 박 후보는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정수장학회, 영남대 및 육영재단 문제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의혹은 엄청나게 많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진실은 아직 없다.

청문회 결과는 대선정국의 중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을 털어내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10%대 끌어올리며 희망을 걸 수 있다. 그러나 후보의 해명만 듣고 '면죄부'를 주는 형식이 돼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 검증청문회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라 할 수 있다. 두 후보는 자신들을 향한 각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국민에게 다가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청문회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속이 답답하고 음식이 목에 걸린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젊은 여성들을 한국에서는 많이 대한다. 진찰상 뚜렷한 병이 없고 검사 결과들도 다 정상이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3대가 한 지붕 밑에 산다는 소위 '이상적인' 대가족 제도의 가정에서 온 며느리들이다. 겉으로는 모범가정이라는 칭찬을 듣지만 속으로는 이 '아름다운' 제도 때문에 젊은 여인네들은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 결혼한 딸이 미국인 시부모를 대하는 것을 보면 한국식 가정이 떠오를 때가 참 많다. 딸은 미국인 시부모의 이름을 부른다. 스페인어에 대한 것이 친구처럼 보일 때도 많다. 그러면서 버릇없다. 예의가 없다는 말을 듣지는 않는다.

는다며 둘 사이를 마음대로 찢어 가르는 것이다. 기계가 작동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제조 회사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듯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풀이 한 풀을 이룬다'는 제조자의 매뉴얼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결혼'이라는 것은 여자가 '시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자가 '시집에서 나와' 여자와 합하여 별도의 새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한 국식 가족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은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년이 되면 짝을 찾아 과감하게 내어보내 독립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맞

고통받는 대가족의 며느리들

물론 딸을 시집에 빼앗겼다는, 그 집 가정에 종속됐다는 느낌도 없다. 그저 새로운 가정이 생겼다는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가정은 어떻게. 한국식 가정은 '시집간다'는 말이 의미하듯이 아들의 부모가 다른 가정의 딸을 데려와 자기 가족 아래 종속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 감독 겸 주인은 신랑의 부모이고 신랑은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조연 정도다. 신부의 위치는 감독이 세력기 위해서 어디서 데려온 엑스트라 수준일 뿐이다. 한국 연속극도 비슷하다.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 젊은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들 중 아마도 80% 이상이 당사자들은 서로 사랑하는데 한결 같이 부모들의 반대 때문에 젊은이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피어는 비수한 내용들이다. 당사자들의 의사는 강 그리 무시된 채 부모들의 뜻에 맞지 않

줄을 끊어주는 의식이다. 만약 맺줄을 끊어주지 않고 놓아두면 산모와 신생아 둘 다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 결혼한 자식을 억지로 자기 아래 종속시키려는 행위는 양측이 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물론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져 판단실수로 인해 평생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론이 많은 어른의 의견과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순리대로 아들과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들끼리 자유스럽게 살도록 풀어놓아 줄매 마음속으로부터 우리나오는 자발적인 효도를 며느리로부터 받게 될 것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왕래하며 모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는 형편일 때는 자기가 아닌 아들에 부부가 그 집의 주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가족 상대 '장례식장 횡포' 왜 방치하나

장모님 상을 당했다. 발인 전 큰 처남이 수의를 입혀드리려고 그동안 예지중지 보관해왔던 것인데, 병원 장례식장에서 그곳에서 파는 수의와 장례용품만 이용하려 제지했다. 밖에서 만들어진 수의를 입힐 수 없다는 것으로 유가족들이 통사정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수의를 입히되 그 위에 고인이 원했던 수의를 추가로 덧입혀 드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더운 여름에 두겹게 두겹으로 옷을 입힐 수 있는냐는 의견이 많아 장례식

장 수의는 그대로 놓아두고 집에서 준비한 수의만 입혀드렸다. 결국 돈만 주고 쓰지 않는 장례식장쪽 수의를 구입한 셈이 됐다. 그뿐 아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친지들이 가져온 음식도 일절 들이지 못하게 했다. 가족을 떠나보내는 유가족들을 상대로 이 같은 횡포를 부리는 장례식장,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장사속만 따지는 이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관할 자치단체는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성열·나주시 산정동

기고

한 병선



공교육 내실화 문제는 매년 등장하는 주요 정책과제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과제는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유는 정책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의 실천적 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여 미시적으로 교육 내실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고령교사들에 대한 연수대책이다.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고 이에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현실에만 안주하여 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극적이었던 공교육 내실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면에서 질 높은 학습 콘텐츠 개발은 필수적이다. 사교육 프로그램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더욱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다. 넷째, 학교의 교육활동 전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학기별 혹은 학년별로 학교경영 및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

공교육 내실화, 이 다섯가지 일부터

따라 교육공학적 기법들이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령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새로운 연수프로그램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경영자와 교사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단위학교의 교육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학교장, 교사 간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정례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물론 교무회의가 있긴 하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형식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평교사 간담회 같은 정례적 의사소통의 장을 만든다면 소통 면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질적인 의사소통은 교사 개인들의 능력을 학교전체의 교육력으로 모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셋째, 내실 있는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섯째, 학교 내 인사조직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 현재 학교 내 인사조직은 행정중심 편제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를 교과 및 기능중심의 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업무의 핵심기능과 교과협의를 강화시켜 갈 수 있는 '팀(team)제'로 개편이다. 교사들의 책무성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공교육 내실화는 거창한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교육 불신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작은 것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에 제시한 몇 가지 사례들만이라도 현장에서 내실 있게 실천된다면 공교육 불신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실천에 눈을 돌려야 한다. <교육평론가>

제약협회 '표시사항 의무규정 삭제' 납득 안돼

제약협회가 신문·잡지 등의 의약품 광고 때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대해 적용돼온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있습니다'라는 표시사항의 의무규정도 함께 삭제키로 했다. 소비자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약

만 팔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동안 의약품 사고로 안전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자성의 빛은 온데간데 없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무사항을 삭제키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제약회사와 관계당국은 이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그보다 제품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보다 쉽게 풀어서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먼저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화정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 지급합니다.

無等鼓

우리나라 명절은 교통난으로 시작해서 교통난으로 끝난다. 수천만 명이 일시에 이동하니 특단의 대책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고속도로(고속국도)가 주차장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최근에는 휴일이니 주말에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고속도로가 적지 않다. 먼 전국 고속도로 24개 노선(총연장 2천 874km) 가운데 3분의 1인 8개 노선에서 법정 최고속도마저 내지 못하는 구간이 255.2km에 달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정체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교통체증 등으로 최고속도 이하로 유료도로를 운행하면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란 말 그대로 자동차가 고속으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넓고 평탄하게 만든 도로를 말한다. 차량 정체나 사고 위험으로 인해 제 속도를 낼 수

없다면 그건 고속도로가 아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는 운전자들에게 '죽음의 도로'로 불린다.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16번째(1990~2005) 최고 치사율(1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총사망자 숫자) 도로라는 오명이 붙어 있다. 88고속도로의 치사율이 높은 것은 적은 예산으로 건설을 서두른 탓이다. 쪽

히 5~6년은 걸릴 공사를 33개월만에 서둘러 마치느라 커브 구간 비율이 전국 고속도로 평균치의 5배인 38.2%에 달한다. 중앙분리대로 없고 편도 1차선에 급커브가 태반이니 통행료 거부운동이 일었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결국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유는 4차선 확장공사도 미뤄졌다. 언제까지 국도보다 못한 고속도로를 가슴 졸이며 달리면서 비싼 통행료는 물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88고속도로가 진짜 고속도로 구실을 할 날은 언제쯤일까.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제11간	
대표전화 2200-500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29	(F A X 227-0118)	광 고 국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16	문 회 생 활 부 2200-626	판 매 부 2200-551	
경 제 부 2200-617	여 령 매 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8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사 진 부 2200-690	시 설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